

■ 민선 5기 이것이 현안이다

장흥군

로하스타운 재원 마련 총력

장흥군의 민선 5기 현안 과제는 ▲정남진 로하스(LOHAS) 타운 ▲'2010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정남진 치유의 숲 ▲탐진강 종합정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남 중남부권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것이다.

민선 5기 군정을 이끌어가는 이명훈 장흥군수로서는 이들 현안에 자립도가 10%도 채 되지 않은 열악한 상태에서 1000억원 이상의 재원 마련에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전남도 등과의 협력의 통한 복잡한 절차도 순탄치 않다.

이 가운데 이 군수가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도시지역 은퇴자나



장흥군 역점사업인 친환경 생태휴양도시 '정남진 로하스 타운' 조감도.

총 233만㎡ 가운데 146만㎡(63%)에 달하는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난 1월부터 시범지구 204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

화 초등학교 설립에 있어 까다로운 법적 절차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군수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2010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역시 순탄치만은 않은 사업이다.

관산을 옥당리 천관산 주변에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장흥지역 생약초를 기반으로 3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해 열겠다는 생약초 한방체험(국제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또한 성공 여부도 미지수다.

이밖에 45억원 재원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민·관 공동개발로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추진되는 ▲비비(vivi)에코피아 ▲풍곡(風谷)·산림욕장 등의 '정남진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자칫 '용두사미' 격으로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도록 재원마련과 관련협력이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kykim@

2014년까지 1000억 들여 도시은퇴자·귀농자촌 조성

'정남진 치유의 숲' 등 추진 '중부권 거점도시'로 도약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3세대(유소년·청장년·노년층)가 공존하는 맞춤형 친환경 생태휴양도시인 일명 '로하스타운'이다.

로하스 타운은 2500여세대 입주 계획으로 안양면 기산·비동리 일원 233만㎡ 부지에 오는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그동안 기대만 우려만 논란이 야기 됐던 로하스 타운 조성은 이명훈 군수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끝내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며

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이 실현되기까지는 일부 문중의 토지 매각 반대 등 아직도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다. 또 총사업비 5137억원 중 95%에 이르는 4800억원이 민자자본으로 투자되는 현실에 비해 '투자 안정성 제고'와 '분양가 현실화'를 위해 전남도의 공공부문에 대한 재원투자를 끌어 들여야 하는데 박준영 도지사가 로하스 타운 투자에 아직까지 유보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게 장흥군의 고민이다.

상하수도 문제와 유치원·특성

흥길동 브랜드 가치는? 장성군 2개월간 인지도 조사

장성군이 대표 브랜드인 '흥길동' 인지도 조사를 벌인다.

장성군은 국비 1800만원을 들여 전국 일반인과 전문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2개월 동안 ▲흥길동과 장성군의 인지도 ▲흥길동 문화컨텐츠사업 ▲흥길동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및 전화조사를 병행한 정량적 조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면접(FGD)방식의 정성적 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500명 ▲충청권

250명 ▲호남권 250명으로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된 내용은 검증 및 결과분석을 통해 향후 흥길동문화컨텐츠사업 등 장성군의 정책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실속없는 '농작물 재해보험' 수술 필요

정부가 지난 2001년도에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일선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없어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나주지역 과수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로 나주시 전체 2354ha 면적 가운데 1714ha가 50% 이상 열매가 맺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나주지역 3000여 과수농가 가운데 40%인 1200여 농가만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대다수 농가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입장이다.

이 같은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태풍·우박 피해만 보상...냉해 등 기상재해는 '특약'

나주 과수농, 보험료 부담에 특약 가입률 10% 그쳐

보험료 부담을 꼽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가 주계약과 특약계약으로 나뉘어져 대부분의 농가들이 재해보험의 보상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월등히 많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특약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현재 태풍과 우박 등 2가지 재해에 대해서만 주계약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대폭 확대해 냉해·일조량 부족·물결·호우 등까지 주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수농가 K모(59·나주시 금천면)씨는 "재해보험에는 가입을 했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특약조건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1만1570㎡(3500여평) 규모 과수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면 통상적으로 200여만원의 보험료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나주시 노안면 일원을 초토화 시킨 우박 피해의 경우 현재 20~30%로 기준돼 있는 담보 범위별 면책비율을 5% 손해면책으로 대체해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을 현실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특약보험을 주계약에 포함시킬 경우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며 "정부가 재해보험의 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료 가운데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지자체가 30%를 추가로 보조해 실질적인 농가부담은 20% 불과하다. 하지만 목돈으로 납부하는 등의 부담으로 가입률이 40%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특약가입은 전체의 10% 가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더위엔 수박이 최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지난 9일 담양군 봉산 한미음식작목반 시설하우스에서 친환경 수박 생산이 한창이다. 작목반은 8ha의 시설하우스에 무농약농법으로 친환경 수박을 재배,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담양군 제공)

"아름다운 백양골 화폭에 담아보세요"

내장산 백양사사무소, 12일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사무소(소장 정석원)는 12일 백양사 일광정 일원에서 '제3회 백양골 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상대회는 광주·장성·담양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백양골의 자연경관과 생태'라는 주제로 실시된다.

또 그림그리기 외에도 ▲페이퍼아트 ▲손수건 탁본 뜨기 ▲갈참나무 할아버지 동극(童劇)공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번 시상대회 결과는 오는 17일 내장산국립공원홈페이지(naejang.knps.or.kr)를 통해 발표된다.

정석원 백양사사무소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도화지에 담으며 어린이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의 061-392-7288.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강진농기센터 '반딧불이' 인공 사육 성공

강진군이 청정환경의 지표(指標) 곤충인 '반딧불이' 사진 인공 사육에 성공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는 지난해 6월부터 '애반딧불이' 자체양식을 시작해 알→유충→번데기 과정을 거쳐 최근 성충의 출현으로 인공사육 성공이라는 값진 성과를 보게 됐다.

이에 앞서 센터는 전북 무주와 경북 영양군 등 반딧불이 인공사육에 먼저 착수해 브랜드화와 함께 축제로 발전시켜 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사육기술을 습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딧불이는 ▲애반딧불이 ▲뿔반딧불이 ▲문산반딧불이 등 3종이 보고되고 있으며 반



딧불이가 인공사육에 이용되고 있다.

이동근 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 담당은 "인공양식에는 성공했지만 초기단계 수준으로 대량생산 체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미미한 상태"라며 "앞으로 양식기술정립과 함께 사업을 점차 확대해 청정지역 이미지를 앞세운 지역농산물 판매와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효성공인중개사

011-602-4207
☎ 521-6024 (FAX)521-6028

공장 매매

하남공단 4차선

9번로변

• 대지 4,959㎡

(1,500평)

• 건물 2,176㎡

(658평)

• 호이스트 5t, 10t

(총고 9m)

• 매매가 22억 5천만

물류창고임대

하남공단 8번로

• 건물 1,510㎡

(475평)

• 임대료 평당

1만 7천원

• 총고높이 7m

• 현 대로변 위치 최고

금산공인중개사

T.081-5886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영, 롯데마트 건너편, 산성화재발생영역(4면 광도면)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법원/상기/오피스/유통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910㎡

■ 특징: -주유건축시설 허가 특

-도로점용 허가 특

-미망에서 광주상행선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칠량농공단지앞 유입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매일동 자연저지 매매

• 면적 : 약 3,870㎡

• 단가 : 평당 200만원

• 위치 : 매일저수지 옆, 대동고 가는 도로변

• 빌라, 가든, 전원주택 최적함

• 자가 급증지역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이 최대의 고민해결!

중간에 사들거나 강지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름... 분들의 "기"가 원할 해지도록 도움 드리며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만한 마그마원석의 다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도록 10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8만원 상당의 고급 사은품 증정)

은 60% 대, 중, 소 10단계조절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탈모, 무모

모 이제 고민 끝!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의사와 약사가 명예를 걸고 3년 동안 연구를 거쳐 개발한 이 제품은 그동안 남보르게 고민해오던 탈모 무모증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이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입니다.

남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 위축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제품도 달라야겠죠?

모근에 영양 공급이 바르고 감아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뿐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배꼽이래 체모가 풍성해 진다.

1588-4102

010-5296-4114, 010-8952-411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1 전선영 (홍신편) NO. 19-5301호

www.핫니경.kr